

 보건복지부	보 도 참 고 자 료		
배 포 일	2020. 1. 29. / (총 6매)		
중양사고수습본부 총괄1팀	손 영 래 조 영 대	전 화	044-202-3802
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정책과	홍 종 완 양 기 현		044-202-3803
			044-205-5250
			044-205-5251

제3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중양사고수습본부 관계부처 회의

- 현장 방역 강화를 위한 부처협력사항 논의 -

-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양사고수습본부(본부장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)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3차 회의를 개최하고,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상황과 향후 조치계획 등을 논의하였다.
- 현재 질병관리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로서 현장 방역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,
 - 보건복지부의 중양사고수습본부는 방역대책본부가 방역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, 부처 간 협조가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지원을 하는 중이다.
 - 이번 회의는 효과적인 방역을 위해 현재까지의 방역대처 상황을 공유하고 각 부처의 협조사항을 논의하는 한편, 우한교민 이송 및 임시생활시설 방역 등에 관한 방역조치도 함께 논의하였다.
- 정부는 중국 우한 귀국 국민 임시생활시설에 대해 외교부, 복지부, 행안부 등 관계부처들과 방역전문가들이 협의한 결과 경찰인재개발원(아산)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(진천) 2개소를 지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.

- 귀국 희망 국민들의 불편과 감염가능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시설로 운영하는 공무원 연수원·교육원 중에서 각 시설의 수용능력, 인근지역 의료시설의 위치, 공항에서 시설 간의 이동거리, 지역안배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.
- 당초 대형시설 한곳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으나 귀국 희망 국민수가 처음 150여 명 수준에서 700여 명 이상으로 증가하고, 감염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1인 1실(별도 화장실 포함) 방역원칙에 따라 방역통제가 가능한 시설로 선정하게 되었다.
- * 외교부 당초 협의시 귀국 교민 150명(1.24.) → 500명(1.26.) → 694명(1.27.) → 720명(1.29. 현재)
- 귀국 후 공항에서 증상여부 검사 후 증상이 없는 귀국 국민들은 14일 동안 임시생활시설에서 생활하게 되며 가급적 상호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, 개인공간을 벗어날 경우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며 입소기간 동안 외부 출입 및 면회는 금지된다.
- 또한 의료진이 상시 배치되어 1일 2회 발열검사와 문진표를 작성해서 건강상태를 점검하고, 체온이 37.5℃ 이상 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곧바로 격리의료기관으로 이송되어 확진여부 판정 및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.
- 그리고 귀국 국민들은 14일 동안 특별한 증상이 없을 경우 보건 교육 실시 후 귀가 조치된다.
- 한편 정부에서는 선정된 2개 시설에 정부합동지원단을 구성하여 의료장비와 인력을 배치하고 생활물품을 제공하는 등 최대한 귀국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.
-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의심환자에 대한 원활한 상담·문의를 위하여 1339 콜센터의 인력도 대폭 증원한다.

- 현재 19명 3교대로 운영하고 있으나 1.29일 역학조사관 등 전문 인력 5명을 포함하여 174명으로 증원하였고, 이후에도 전체 상담 인력이 320여 명 수준으로 증원되도록 인력을 추가 증원할 계획이다.
- 정부는 14일 이내 후베이 방문 이력이 있는 사람이 발열, 기침 등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1339를 통해 신고를 하여야 하나, 일반 문의전화의 지나치게 많아 신고가 필요한 의심환자의 접수가 늦어지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인력을 대폭 증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.
- 또한 정부는 일선 보건소의 업무 조정 및 전담 조직 마련을 통해 현장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.
 - 지역 보건소는 지역 사회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감염병 예방·대처 외에도 일반 진료 및 건강 증진 업무를 맡고 있었으나,
 - 이번 조치로 일반진료 및 건강증진 업무는 대폭 축소하게 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된다.
 - 일선 보건소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요청에 따라 업무 조정을 통해 인력을 재배치하고 감염증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임시 전담조직을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다.
- 중앙사고수습본부 박능후 본부장은 “일선 보건소는 업무 조정을 통해 감염병 대처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전했다.
 - 아울러 “이번 조치로 기존에 보건소를 방문하는 국민 여러분께서 일부 불편함이 있더라도,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 유입과 확산 차단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하는 만큼 깊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”고 말했다.

- 정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“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국내 유입과 확산을 차단하고자 범부처 차원에서 총력을 다하겠다.”고 밝히면서 감염병 위기극복을 위해 국민들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.
- 특히 “국민 여러분께서는 손 씻기, 옷소매로 가리고 기침하기 등의 감염증 예방 행동수칙을 준수하고, 중국 방문 후 감염증이 의심되는 경우 의료기관 방문 전에 우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(1339) 또는 보건소로 신고하며, 의료기관 내 병문안 자제와 철저한 검역 과정에 따른 입국 지연에 대해 협조해 줄 것”을 강조하였다.

< 붙임 > 우한 체류 귀국 국민 임시생활시설 선정 기준 및 결과

우한 체류 귀국 국민 임시생활시설 선정 기준 및 결과

□ 선정기준

- (수용 가능성) 1인1실 생활의 방역 원칙상 귀국 교민 720명 및 시설별 운영인력 40명 등이 생활 할 수 있는 시설 필요(질병관리본부)
* 외교부 당초 협의시 귀국 교민 150명(1.24.) → 500명(1.26.) → 694명(1.27.) → 720명(1.29. 현재)
- (운영주체) 신속한 지정 운영, 국민 불편 최소화 등을 고려하여 국가 소속 공무원 교육원·연수원 지정 필요
- (의료시설 위치) 유증상자 발생 및 확진 환자 발생 유사시 신속한 접근 및 치료가 가능한 주변반경 1시간 이내 종합병원 위치
- (주민 이격성) 주민 밀집시설과 일정거리 이상 이격된 곳
- (공항 접근성) 공항에서 무정차로 2시간 내에 도착 가능한 시설
- (지역 안배) 1개 시설 수용이 불가능하여 2개 시설 운영시 지역 형평성을 고려

□ 선정결과

- 수용적 측면과 의료시설 접근성 등 모든 면에서 우수한 경찰인재개발원이 1순위
- 우정공무원교육원 등 3개소가 비교적 우수하나, 경찰인재개발원이 지정되면 지역 안배성을 고려할 경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 2순위

붙임

임시생활시설 현황

□ 경찰인재개발원(아산)

구분	개소	수용규모(명)
생활관	638*	1,276
강당	1	
체력단련실	1	
구내식당	1	1,300
실내체육관	1	
도서관	1	

* 2인 638개소

□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(진천)

구분	개소	수용규모(명)
생활관	212*	519
강당	2	736
분임실	38	760
구내식당	4	404
도서관	1	-
매점	1	-

* 1인실 10개소(장애인 3개소), 2인 102개소(장애인 6개소), 3인 95개소, 4인실 5개소